

정밀화학기업용 ERP 템플릿 개발!

산자부, 2003년 19개 사업자 선정 ... 환경부문 정보화에 (주)이카운트

2003년 <업종별 ERP 템플릿 개발지원 사업>에 인프라정보통신(주)을 비롯한 19개 사업자가 선정돼 총 5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업종별 ERP 템플릿 개발사업>의 2차년도 개발사업자로서 전력, 자동차, 애니메이션 등 19개 컨소시움을 선정했다.

ERP 템플릿 개발사업은 해당 업종의 세부분야별 특성 및 표준프로세스를 도출해 업종별로 표준적인 ERP로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ERP 구축과정에서 50-60%를 차지하는 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ERP를 통한 경영혁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지원을 위한 접수를 2002년 11월13일 마감한 결과, 총 25개 업종에 걸쳐 80여개 컨소시움이 개발지원을 신청했으며, 2002년의 15개 업종 60개 컨소시움에 비해 업종이 다양해지고 신청 건수도 늘어나 ERP 템플릿 사업에 대한 솔루션 기업들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했다.

ERP 템플릿 신청현황

구 분	신청건수
자동차/농축산	9개
섬유	6개
전자/유통/골판지/기계/건설/전력	5개
비철금속/조선/환경	3개
금형/제지/정밀화학/전자상거래지원/유틸리티설비	2개
완구/시계/안경/철강/파스너/석유/애니메이션/자동화장비	1개
합 계	25개 업종 81개

사업자 선정에서는 컨소시움의 구성,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 개발능력 등 개발주체의 적절성과 템플릿 개발 계획, 구성요소 등 개발내용 및 향후 보급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심의됐다.

특히, 3년간 총 120억 예산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2003년은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인 만큼 다양한 업종의 템플릿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새로 9개 업종을 추가한 19개 컨소시움으로 결정했다.

정밀화학 부문에서는 (주)인프라정보통신이, 환경 부문에서는 (주)이카운트가 선정됐다.

1996년 8월 창립된 (주)인프라정보통신(대표 김장수)은化粧품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정밀화학기업을 대상으로 ERP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이타운트(대표 김명희)는 국내 300-400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환경설비 개발·시공기업들이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관리·공법관리 등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취약점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로 추가된 9개 업종은 전력, 금형, 애니메이션, 골판지, 시계, 안경광학, 파스너, 비철금속, 자동화장비 등이다.

산자부는 2003년 1월 협약체결을 완료해 정부 개발자금을 지원하며, 2003년 12월까지 템플릿 개발을 완료해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으로 적극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 01/ 29>